

교회소식 및 광고

1.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 말씀을 생활화하는 성경통독(21주), 7days 범사 감사에 모두 참여합니다.
3. 말씀 나눔: 매일 보내는 말씀 묵상을 따라 기도하면서 참여 바랍니다.
4. **성령강림절연합예배:** 은혜롭게 드렸음과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5. 성경통독: 제9차 도전 **100일 성경통독**이 은혜 중에(75일) 진행됩니다.
6. 기도회: 화요일 7시 중보기도. 5/29(수) 8시 Zoom 기도회(빌립보서 강해)
7. 감사: 맛있는 점심-유혜영 권사님 대접 *강단미화: 박동희 권사님 감사로 드림.
8. **차세대 사역:** 차세대 사역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중보기도를 바랍니다.
 ** 교회 학교와 청년부 사역 문의--김반석 목사(445)208-3527 **
 ** 기도 상담, 성경공부와 통독 문의--박종님 전도사(267)265-0369 **
 ** 성가대, 찬양팀 문의--반주자: 임현선 집사(215)869-7632 **

향기로운 예물

지난주일 헌금봉헌 (\$ 2,982.00)

- 십 일 조:** 김반석, 박동희 박종님, 오근희, 이진원 유금자, 임현선, 조병기, 조민연 우영자, 조병우 조은미, 조윤경.
- 감 사:** 박동희 박종님, 오근희, 유혜영, 이경원, 임현선,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Kelly.
- 주일헌금:** 고향속 최호상, 김기영, 김반석, 유혜영, 조병기, 조은미.
- 선교헌금(7Days 감사):** 유혜영,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2024년 교회 목표

**** 후원하는 선교지 기도 제목 ****

1. 도미니카 (신현재) 지교회 개척 및 전도
2. **혹 해** (유동윤) 선교센터 건립, 사역자 양성
3. 콜롬비아 (김선훈) 사역자 재교육, 태권도
4. 피 지 (이성일) 신학교 교육, 원주민 전도
5. 과테말라 (이누가) 병원 치료사역 및 현지인 전도

제16권 21호 2024년 5월 26일

영혼구원

제자양육

사랑의 섬김

담임목사 조병우

Rev. Dr. Byung Woo Cho

☎ 518-598-6380

byung4815@yahoo.co.kr

필라 등대교회
Lighthouse KUMC of Philadelphia

137 N Easton Rd. Glenside, PA 19038

www.lighthousekumc.org

☎ 215-690-4919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영어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수요기도회	저녁 8:00

주 일 낮 예 배

오전 11:00

인도: 조병우 목사

- 경배와 찬양 Opening Hymn 엘림찬양단
- 합심기도 Prayer 다 같이
-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 같이
- ♣ 송 영 Spiritual Song 다 같이
-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박동혁권사
- 환영과 소식 Parish Concern 인도자
- 찬 양 Anthem 찬양단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로마서 5:1-11 다 같이
- 설 교 Sermon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조병우목사
- 봉헌송 Hymn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같이
- ♣ 헌금봉헌 Offering 찬송가 213장 (4절) 다 같이
- ♣ 봉헌기도 및 축도 Offering Prayer & Benediction 조병우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즐겁게 식사하면서 친교를 나누세요. ♪


수 요 기 도 회

밤 8:00 (ZOOM)

새 벽 기 도 회

화~토 새벽 6:00

이번 주 섬김이

	낮기도	식사기도	친교 담당	안내, 헌금위원
이번주	박동혁 권사	조병우 목사	유혜영 권사	조민연 권사
다음주	유혜영 권사	박종님 전도사	송순란 집사	박종님 전도사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는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부모로서의 하나님을 아름답게 묘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분열된 왕국 시대에 북쪽 왕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부드러운 아버지로 묘사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호 11:1) “젖먹이처럼 들어 올려 볼에 비비기도 하였다”(4절)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살피신다는 확실한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한 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삶의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라 부르시고(요일 3:1) 위로의 팔을 내밀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아버지께 그냥 달려갑시다.

In the Bible, there are many beautiful stories of God as a loving parent, images that invoke God’s deep love for His children. A Prophet of Old Testament, Hosea was given a message to deliver to the Israelites living in the Northern Kingdom during the time of the divided kingdom. He declared them to return to God. Hosea reminded the Israelites of God’s love for them as he pictured God as a gentle Father: “when Israel was a child, I loved him” (11:1) and “to them I was like one who lifts a little child to the cheek” (v. 4). This same reassuring promise of God’s loving care is true for us. Whether we seek His tender care after a season where we have rejected His love or because of pain and suffering in our lives, He calls us His children (1 John 3:1) and His comforting arms are open to receive us. Let’s just run to the Father who calls my name.